브랜드를 지니는 대신 몸에 찍자

(출21:1~11)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브랜드를 지니는 대신 몸에 찍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브랜드를 지니는 대신 몸에 찍자'
브랜드를 몸에 지니는 대신에 아예 몸에 찍어버리자는 것입니다.
2006년 9월 17일에 런던 도심 한 가운데서 진기한 구경거리가 펼쳐졌는데 이름 하여 브랜드 화형식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이벤트 기획가로 일하고 있는 닐 부어맨(Neil Boorman)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명품 브랜드의 물건들을 시내 한 복판에 끌어내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분의 쓴 책이 2007년에 나왔는데 제목이 "나는 왜 루이비통을 불태웠는가?"이고, 부제가 "한 명품 중독자의 브랜드 결별기"입니다.
지니고 다니는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하던 이 작가가 어느 날 존 버그의 "사물을 보는 시각"이라는 책을 대하게 되면서 한 문장이 뇌리를 때리게 되는데 "광고는 자기들이 광고하는 물건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감을 조장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닐이 "내가 브랜드에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불안감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브랜드와의 결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D-day를 정해서 화형식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를 합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루이비통이나 구찌의 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옛날로 말하자면 “나는 루이비통과 구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brand는 ‘상표’라는 뜻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유명상품, 명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브랜드라는 말의 유래는 노르웨이의 고대 언어로 ‘brandr’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태운다.’는 뜻으로 영어의 burn, burning과 상통하는 것으로, 가축에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달군 쇠로 화인을 찍는 것으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바로 노예의 낙인으로 노예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에게 사용된 브랜드 중에서 가장 기억이 생생한 것은 2차 대전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붙여줬던 다윗의 별입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원래 노예의 표식이었는데, 이제 명품의 뜻을 담게 되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를 몸에 지니지 말고, 브랜드를 몸에 찍으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노예의 표식으로서의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라는 부분입니다.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그것이 노예의 표식인 브랜드가 되어서 일평생 종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브랜드가 그 말의 어원처럼 화인을 찍어서 노예의 표식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노예의 표식을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닌,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민이라면 마음에 “나는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은 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노예”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끝나고 시내 산 계약에서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십계명이 이야기된 뒤로, 일상적인 삶에서 염두에 둬야 될 선민공동체의 시민법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판례를 정해주는데, 이상한 것은 제일 먼저 등장한 법이 종에 대한 법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이 생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뒤따라서 나온 시민법이 사형에 관한 법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그릇 행동한 자들에 대한 법이라든지, 동해보상법 등이 언급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보다도 종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종에 관한 제도가 선민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타당성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종에 대한 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적용할 상황도 아니지만,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노예 제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내용을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을 언급하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 선민을 택하셔서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선택받아서 선민이 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내가 받는다.”는 받음의 측면이고, 두 번째가 “내가 드린다.”는 받음에 대해 응답하는 드림의 측면이고, 세 번째는 동행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는 먼저 받는데 바로 선택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날에 아기가 태어나도 왕궁에서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이고 천민에게서 태어나면 천민으로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운명적인 것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택이고 선택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됩니다.
이 받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로, 지금도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은 받음에 대한 응답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만 마음을 줌으로써 부부관계가 성립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받음의 사건이고 자녀로 삼는 사건이라면, 시내 산의 계약 사건은 아내로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겠다는 서약으로의 드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동행의 사건입니다.

관계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출애굽을 통해 자녀가 되는 선택 받음의 사건이 있었고, 시내 산 계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림으로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아내 된 자로서 드림의 응답의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받음과 드림으로 인하여 맺어진 하나님과 선민이 동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동행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받음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입니다.
드림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나는 아내입니다.
동행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제 받음과 드림의 사건이 끝나고 동행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시민법의 내용이 종에 관한 신학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이 땅에 내려와 인간으로 사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모든 발걸음은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아버지가 주인이셨습니다.
빌2: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신학적 근거 위에서 오늘 선민들이 지켜야할 시민법 중에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회에서 동행하고 시장에서 장 볼 때에도 밥할 때에도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할 때에 나의 위치는 철저하게 종(노예)의 위치여야만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종(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집니다.

이 동행함에 종의 표식인 브랜드를 몸에 찍는데 왜 찍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명 상품을 뜻하는 브랜드를 몸에 지니고 싶어 하는데, 선민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브랜드가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그 브랜드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찍는 것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귀에 구멍을 뚫으며 생기는 종(노예)의 의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5-6절을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노예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이웃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년째에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야 합니다.
노예이지만 종신 노예가 아니고 계약 노예로 계약직과 같은데, 이 경우에는 홀몸으로 와서 노예가 된 사람이면 7년 만에 나갈 때에 홀몸으로 나가면 되고, 결혼해서 왔다가 나갈 때에는 결혼한 그 상태로 나가면 되는데, 홀몸으로 왔다가 종으로 살면서 결혼해서 자식까지 다 나았는데 혼자서 나가야 될 때에, 아내와 가족들과 그 집에 남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에게 평생 노예생활을 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노예가 될 때에 문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노예의 표식인 브랜드를 몸에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찍히면 루이비통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

를 송곳으로 뚫으면 영원히 노예가 되겠다는 자발적 결정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노예의 표식인 브랜드를 '문'에 대고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기도를 읽어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왕상3:7-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자기를 종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은 왕이 되어도 종으로 왕이 되는 것이고, 판사가 되어도 종으로 판사가 되는 것이고, 학 박사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해도 종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진짜 종이라도 종으로 사는 것인데, 이 종의 특징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입한다.'는 게 뭡니까?
문을 들락거리는 것인데 문을 들락거린다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돈 문제라는 방에 있다는 것인데, 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돈 문제라는 방으로부터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간다(出)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 된 상태로 보면 그쪽으로 들어간다(入)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 내일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문을 통과해야 오늘의 상황이라는 방에서 더 나아진 내일의 상황이라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문제(問題)'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문은 물을 문(問)입니다. 문 문(門)자 가운데에 입 구(口)가 있습니다.
문제는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으로, 문에 서서 입을 여는 것이 물을 문(問), 질문하는 것입니다.
들을 문(聞)자는 문 문(門)자에 귀 이(耳)를 써서 표현하는 것으로, 문에서 입을 여는 것이 질문이고 문에서 듣는 것이 대답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으로,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문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이 뜻하는 것은 귀이고,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문제와 부딪칠 때 부장님에게 묻고 경험자에게 묻고, 집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가서 묻고, 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인데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노예의 표식으로 문에 대고 귀에 구멍을 뚫는 브랜드를 몸에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6절이 본문의 핵심으로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주셨고,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약속받은 자들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으면,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평강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음과 드림의 쌍방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에서 시작될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종(노예)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떤 문을 통과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묻는 자이고 듣는 마음으로 귀를 여는 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시내 산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이 오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릴 것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삶에서 동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문자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인간들의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해줄 테니, 그 속에 담긴 너와 나의 관계를 깨닫고 너와 나의 관계가 동행의 관계로 유지되려면 바로 이렇게 매번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기 전에 질문하고 듣는 종의 신분으로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일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좋고 나쁨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출입을 할 줄 모르는 것이고, 선악과를 다 뱉은 상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이런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자기주체성의 효과를 다 토해내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마음상태를 회복해서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천 번제입니다.

일천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마음의 귀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나는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께 듣지 못하면 하나의 행동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일천 번제가 단번에 드려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귀 뿐만 아니라 발과 손에 못을 박아 버리고 머리에 가시로 박아버리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겠다는 노예의 표식이고 종의 표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후4: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받음이 있었고, 드림이 있었고, 최소한 드림을 위한 결정이 있었고, 동행하게 될 때에 선교의 사역이 오로지 종만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브랜드는 몸에 찍고 다녀야 합니다. 몸에 찍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서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내 마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에 브랜드를 찍어서 하나님의 종(노예)됨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노예 표식으로서의 십자가 못 자국의 브랜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브랜드를 좋아하되 이 세상의 브랜드를 몸에 지니기 위해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 표식으로서의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몸이 못 박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